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5월 2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저희 가족을 구원하셔서

새생명을 주시고

남편에게 놀라운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김 화 식 -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의 유교의 사상과 관습을 따르는 가정에서 태어나 청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동네 교회와 담장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어서 식구들은 매일 교회의 새벽종소리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바쁜 시골 생활 중에도 말끔하게 단장한 교인들이 저희 집을 지나서 교회에 오갔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몹시 부러웠지만 철저히 유교를 따르는 집안 분위기로 인해 교회에 가면 큰 일이 생기는 줄 알고 주저하였습니다. 그 때 교회에서 자주 들려오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는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가 뚜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 지금도 이 찬송가를 부르거나 들을 때면 크고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교회의 예배 시간에 맞춰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고 떡을 하여 가가호호 돌릴 정도로 미신과 우상숭배 행위가 심했습니다. 교회당 맞은편에 사는 데도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하게 심신의 장애를 앓는 어떤 여자가 밥을 얻어먹으려고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고 홀로 어렵게 살면서 참기 힘들 정도로 배가 고프면 먼 길을 걸어 우리 집에 들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과 어느 정도 안면이 생기자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면서 일요일마다 30리 길을 걸어서 교회에 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장애가 심해 말투가 어눌하여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교회에 가자.’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있는 그녀가 하는 말을 우리 가족은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서른 아홉 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가세가 급격히 기울고 어머니와 저희 4남매는 하루 하루 사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람을 의지하려는 생각에 집안에서 서둘러 저를 중매로 결혼시켰습니다. 제 나이 스물 두 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만팔인 저와 동생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믿고 집안에서 서둘러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저희 가족의 바램과 달랐습니다.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로 마음이 편치 않았고 몸까지 쇠약해졌습니다.

집안의 희망이었던 저마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자 친정 어머니가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로 이사온지 얼마 안 되어서 하루는 어머니가 방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갑자기 “뚝 뚝!”하고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놀랍게도 은혜와진리교회의 구역장님이 전도하러 오셔서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로마서 10:14) 할렐루야!

어머니는 그 구역장님을 따라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인 데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는 듯 얼굴에 빛이 나고 늘 밝은 모습으로 즐겁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시며 성경학교부터 시작하여 성경대학과 구역장대학 등 평생도 교육과정을 차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께서 마치 저 한 사람만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설교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굳세게 되어 구역장 직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이 크게 향상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한지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의 두 딸도 교회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결혼을 하였고,

손주들도 대를 이어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을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남편은 성경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때로 교회중심으로 생활하는 저를 폄박하여 제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하던 어느 날, 늦은 밤에 경찰서와 119 구조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잡으려다 넘어져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크게 다쳐 의식이 없고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라면서, 가족 모두에게 연락하여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 지금 남편이 잘못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기회를 주세요. 남편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위치는 각각 다르지만 두 딸 부부와 손주들도 병원으로 오면서 저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남편은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일단 수술을 해보겠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서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화로 남편을 위해 신유의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제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구에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야고보서 5:15)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남편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회복이 될 줄 몰랐다면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회개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고맙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시흥시 서촌상가1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종: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로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물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병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전북 정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1권 (제9단원 : 성도의 삶)

(제50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 본문 : 로마서 12:1-2
- 요절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 찬송 : 434장(새찬송가 384장), 379장(새찬송가 204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말의 본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따로 예비된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번제단에서 희생의 제물을 바쳤지만 그렇게 드려진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이 세상을 사는 한 거듭해서 죄를 짓기 마련이며 그 때마다 대속물을 바쳐야 할 뿐 아니라(히 10:1),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들 역시 수명을 다하면 죽게 되므로 짐승을 잡아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사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은 그 불완전한 속성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자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의 효험이 있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12)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롬 1:2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믿지 않던 때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거룩함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 제물이 죽여져서 바쳐지듯이 성도는 더 이상 자기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요 자기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답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2.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날 좋아하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언행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 받은 자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와 구원받은 데 대한 징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죄를 짓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지, 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자신의 변화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변화는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죽은만큼 의에 대해서 사는 모습을 통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풍조에 동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적인 풍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해 자기의 영혼도 팔아먹지만 성도는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성도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의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바람직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성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인간의 뜻은 항상 악할 뿐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롬 8:5~8).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딤후 2:4). 성도들이 공의를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미 6:8). 또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살전 5:18).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온전히 못하며 결점투성이입니다. 바로 눈앞의 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힘에 있어서 제한된 것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며 먼 장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므로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때라야 성도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여 살아야 하며(딤후 4:6),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되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엡 1:17~19).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울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김포,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리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